

승용차 없이도 지하철·버스로 이동 가능한 광주 만든다

2040년까지 16조원 투입 대중교통체계 획기적 재편 '대중·녹색교통 중심도시' 전환

광주시가 오는 2040년까지 승용차 없이도 도심 곳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대중·녹색교통 중심도시'로의 대전환'을 선포했다.

광주시는 12일 광주교통정보센터에서 '2040 광주교통 미래비전' 선포식을 갖고 앞으로 20년간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재편해 도시철도, 시내버스,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이 빈틈 없이 상호 연계하는 '대중·녹색교통 중심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시는 이를 위해 5대 전략·21대 핵심 과제를 마련했으며, 총 16조 427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가장 먼저 대중교통의 중심축을 담당할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맞춰 도시철도 역사 중심으로 생활권 환승거점 11개소를 마련하고, 각 이동 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중교통만으로 '시민 절반 30분대 주요 생활권 이동'을 목표로 제시했다. 시는 현재 27%에 머무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이후 36%까지 끌어올려 2040년에는 대중·녹색교통 분담률 5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시는 이를 위해 시내버스노선을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맞춰 전면 개편한다. 급행버스는 배차간격이 현 10분대에서 5분대로 줄고, 도시철도 소외지역과 주요 생활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간선버스는 대학과 병원, 터미널 등 주요 생활시설을 연결하고, 지선·마을버스는 생활권 곳곳을 순환하면서 도시철도 역사 등과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시철도 소외지역으로 좁히는 북구 문흥·각화 지역 등에는 급행버스를 신설해 제2순환도로를 타고 광주공항, 송정역, 선운지구 등을 빠르게 오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도심 외곽 생활권엔 이용 수요에 맞춰 시내버스를 늘리고, 인공지능(AI)으로 최적 경로를 찾아 운행하는 수요 응답형 버스(DRT·Demand Responsive Transit) 시스템도 운영한다.

시는 또 수도권 일부와 세종시 등에서 운영 중인 BRT(Bus Rapid Transit)도 도입할 예정이다. BRT는 버스체계에 철도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전용 차로와 우선 신호 등을 통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시스템이다. 검토중인 구간은 백운광장-버스터미널-가야점퍼인스필드-운암동-본촌산단-희망병원까지 10.3km로, 이미 국가계획에 반영된 상태다. 사업 추진시엔 국비 50%가 지원되며, 시는 BRT 초급단



12일 오전 광주교통정보센터 내 상황실에서 열린 '2040 광주교통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용집 광주시의장 등 참석자들이 교통비전 선언문을 낭독한 후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계인 서울 중앙차로제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이 밖에도 도심 어디서나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 도시 조성을 목표로,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는 가장 오른쪽 차로를 시속 20km로 제한해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친환경 저속차량 등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전용차로제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첨단 과학기술원-상무지구-서광주역을 연결하는 남북축과 수안-양산지구, 서광주역-남광주역을 연결하는 동서축에 자전거 전용도로도 조성한다.

이용섭 시장은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교통 분야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같은 미래비전을 수립했다"며 "이번 비전 선포식을 통해 그동안의 저효율, 고비용의 승용차 위주의 교통 정책에서 탈피해 고효율, 저비용의 대중교통과 녹색교통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광주글로벌모터스 새 대표 11월 초까지 선임

광주시민 '캐스퍼' 구입 취득세 최대 35만원 지원

광주시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새 대표를 다음 달 초까지 선임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2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다음 달 3일 대표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면서 "신임 대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배수진을 치지 않으면 선임이 늦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해 마감 시한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GGM에서 위탁 생산하는 현대차 캐스퍼가 이른바 대박이 나고 있는데 자칫 대표 공백이 오래가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경영 안정성, 노사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납짜를 확정해 그 안에 결한 내기로 한 만큼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박광태 GGM 첫 대표는 지난달 19일 임기가 만료됐으나, 후임 인선이 지연되면서 아직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다. 장관 출신 인사 등 다방면으로 접촉했으나 자동차와 지역 사정에 밝고 주주, 현대차의 공감을 끌어낼 만한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또 이날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광주 시민이 '광주형 일자리'의 결실인 현대자동차 캐스퍼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자동차 공장인 GGM이 빨리 완공되고 캐스퍼가 생산돼 성공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이 성원·뒷받침해줘서 가능했다"며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고, 차를 사는데 혜택

이 없냐고 묻는 시민도 많았다"며 취득세 지원 결정 배경을 밝혔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4%다.

경차는 1250만원이 넘는 액수의 4% 범위에서 50만원까지 감면하고 있는데, 경차인 캐스퍼 가격이 1385만~213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차량 사양에 따라 5만4000~35만 2000원의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정부에서 경차 취득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금액도 65만원 한도로 확대하는 입법 등이 추진되고 있어 조만간 감면액이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해 소비자가 구매 시 취득세를 부담하면 사후에 지역 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 전 구매자에겐 소급 지원한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 의료관광 본격 시작하는 관광재단

지역 호텔들과 업무협약 체결

전남관광재단은 12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 라마다프라자 여수, 유담마리나호텔&리조트 등과 전남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리미엄 의료관광 상품개발·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정 전남만의 특색있는 의료관광 상품 운영을 통한 해외 의료관광객의 전남 유치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협약에 참여한 호텔과 재단은 요가, 아쿠아로빅 등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웰니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협약내용으로 공동으로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호텔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단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강사비를 지원하며 ▲홍보와 컨설팅을 위한 팸투어를 운영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호텔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와 인력을 지원하고 ▲전남 의료관광 전남에이전시에서 의료관광으로 호텔을 이용시에 할인가를 제공하며 ▲해외 의료관광객 입국에 코로나 팬데믹 전과 같이 활발히 운영될 경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을 자체 부담한다. 협약에 따라 재단과 호텔은 10월까지 의료관광 상품개발을 마친 후 11월 중순에는 호텔 투숙객을 대상으로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시행하고 향후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전남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달 의료관광 사업을 함께 설계하고 운영할 전남의료관광 협의체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나주·장성 등 숲체원, 산림청 등에 연중 50% 감면

주철현 국회의원 제기

나주와 장성 등 전국 7곳에서 운영 중인 숲체원(숲체험시설)의 할인 혜택이 감목기관인 산림청과 운영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임직원에게 집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국

회 농해수위)에 따르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현재 국립숲체원 등 시설 객실 이용료를 지역주민·다자녀가정·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에게 비수기 주중에만 30~50% 감면하고 있다. 반면, 진흥원과 산림청 임직원들에게는 연중 상시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흥원은 현재 나주와 장성 등 전남지역 2곳을

비롯해 전국 7곳에서 숙박시설과 숲체험시설을 갖춘 숲체원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 객실 이용료는 성수기나 주말 기준으로 5인실은 8~9만원, 16인실은 23만원 수준이다. 이용객은 지난 2019년 16만 4000명,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에는 9만 5000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감면 대상별 이용 현황은 지난 2019년 지역주민 1882명, 다자녀가정 73명, 국가보훈대상자 73명이었다. 지난해에는 시설을 이용한 953명의 지역주민·다자녀가정·보훈대상자에게 감면 혜택이 제공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국제농업박람회, 입장권 2000원 할인 온라인 예매 서비스

(재)전남국제농업박람회가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나주에서 열리는 2021 국제농업박람회의 입장권 구입과 관람일 예약을 위한 '온라인 예매/등록 서비스'를 공식 누리집에 오픈했다.

'온라인 예매/등록 서비스' 운영은 박람회 고객의 안전한 관람을 위한 것이다. 관람객을 평일과 주말로 적정히 분산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입장권을 구입할 신규 고객과 사전 예약으로 미리 구입한 고객은 2021 국제농업박람회 누리집(www.iae.or.kr)에 마련한 '온라인 예매/등록 서비스'에서 방문 일정을 확정하면 대기 시간을 줄여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다.

박람회 입장권 구매 시 요금 2000원을 할인해주며, 구매자 모두에게 도내 33개 관광지 입장료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영문대학
광신대학교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명령교육상담학 전공)	31	3	
사 범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